

## 코털막 안경

### 1. 괴괴(怪怪)

수일이 K대 M교수를 따라간 곳은 강릉 경포대 호수 남쪽 초당이라는 마을이었다. 마을 한 끝에 울창한 소나무 숲속에 문간채가 딸린 아담한 기와집이었다. 문간채 뒤쪽으로는 커다란 연못이 있었는데, 연꽃이 예쁘게 피어 있었다. 수일은 실직하고 나서 실의에 빠져 있었는데, 고향 후배인 M교수가 찾아와 할 만한 일이 있다고 해서 따라간 것이다.

방안에 들어서자 아주 흥측한 모습을 하고 있는 노인이 의자에 앉아 있었다. 체구는 거대해서 임꺽정 후손처럼 보였다. 그는 임씨였다. 얼굴 아래턱을 손수건으로 커튼을 만들어 가리고 있었다. 그 옆에는 곱상하고 세련되어 보이는 할머니가 앉아 있었다. 그들은 70대 후반으로 보이는 노부부였다. 나에게 대한 소개와 인사가 끝나자, 노인이 자신을 소개하면서 수건을 걷어 올리고 여자의 유방처럼 축 쳐져있는 혹을 보여 주었다. 혹은 흥측하게 자라서 굽아터져 핏방울이 방울져 내리고 있었다. 피부암이었다. 노인이 초면인 나에게 자신의 치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이유는 무엇일까? 수일은 시간적으로 뜬들이지 말고 본론부터 들어가자는 의도로 받아들였다. 움직이지도 못하고 앉아만 있는 병든 노인의 말씨는 또렷하고 힘이 있었다. 난 소름이 끼쳤지만 내색은 하지 못하고 혼연스럽게 그에게 눈을 떼지 않고 관심을 보였다.

“우리와 같이 일 해보지 않겠나?”

“하는 일이 뭐가요?”

“이 앞쪽에 있는 빌딩이 H교수 연구실인데, 그곳에 연구비를 대 주어야 하는데, 경포해수욕장에 신축된 상가빌딩에 호텔과 식당을 운영해서 돈 버는 일이지”

수일은 이미 M교수에게 들어서 할머니가 서울대출신 퇴역의사로 H교수의 수양어머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네, 건물은 완성되었나요?”

“준공검사 만 남겨두었네” 수일이 관심을 보이며 노인에게 다가가 혹에서 흘러내리는 핏방울을 수건으로 닦아주었다. 인간적으로 다정함을 보이며 점수를 따려는 약자의 본능적인 반사행동 같은 것이었다.

노인은 한 눈에 수일의 사람됨을 알아보고 관심을 보였지만 할머니는 별반 관심이 없어보였다. 벌써 이런 사람들을 수없이 보아왔고, 결국은 할아버지의 극성에 모두 나가 떨어져 도망치고 말았던 것이다. 이 사람도 얼마나 버틸지... 걱정부터 앞서는

것이다.

M교수는 노인과 할 얘기가 있는 듯싶어 수일은 집 밖으로 나왔다. 그 집과 불과 20여m 거리에 검은 대리석 3층 빌딩이 눈에 들어왔다. 주위에는 다른 건물이나 민가도 없었고 키 큰 소나무 숲에서 꽃가루만 분분이 바람에 날고 있었다. 저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걸까? 무지 궁금한 생각이 들었다.

잠시 후 M교수와 할머니가 나와 그를 데리고 해안가로 나가 신축된 상가빌딩을 보여 주었다. 그는 이 저곳 살피며 돌아다녔다. 1층에는 수족관과 11개의 객실이 있는 음식점이고, 2층은 단체관광객을 맞이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춘 커다란 홀이 몇 개로 나누어져 있었다. 3층은 호텔객실이 48개다. 수일은 그 모든 것이 자기 소유처럼 느껴졌다. 잘 만하면 자신의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는 4층에 있는 사무실로 들어가 회전의자에 몸을 맡기고 이리저리 둘러보았다. 그러던 그는 무언가 알 수 없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강수일, 너 좋아하지 마라’ 그는 생각에 잠겼다. ‘새파랗게 젊고, 포항공대 나온 유능한 허씨라는 친구가 여태 건물 짓느라 고생고생 하고 나서, 일을 시작도 해보지 않고 떠나버린 이유는 뭘까?’

그는 전임자 허씨를 찾아가 여러 상황을 들었다. 그것들은 참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었다. 얘기를 듣고 일어서는 수일은 다리가 휘청거렸다.

그의 얘기는 이랬다. 병든 노인은 동네 젊은 친구에게 맡겨서 공사를 추진하였는데, 그가 노인을 속이고 토지매입비와 공사비를 부풀리고, 공사는 부실덩어리에다 체불임금이 5억이나 되었다. 이를 알게 된 노인이 그를 해임하고 허씨를 임명하였지만 그도 곧 떠나버린 것이다. 수일은 여러 상황을 상정하여 문제해결가능성과 성공가능성을 검토해 보았다. 오래지 않아 답이 나왔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곧 할머니를 찾았다. 그는 할머니를 어머니라 불렀다. 돌아가신 어머니와 닮은 데가 있어서 느낌이 처음부터 친근하게 다가왔었다.

“어머니,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면 저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원하는 게 뭐가?”

“H교수와 저에게 반반씩 투자하십시오.”

“H교수는 생명공학인데, 자넨 뭐가?”

“신소재 개발입니다, 말하자면 코팅박이 안경을 끼면 물속에 들어가서 물고기처럼 숨을 쉬고, 화재가 나도 연기에 질식되지 않고, 질소탱크에 쳐 박혀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물질 말입니다.”

“뭐 코팅박이 안경?, 그런 것도 있나?” 할머니는 입을 크게 벌리고 다물 줄을 몰랐다.

“그거 참 생명공학보다 더 어려울 거 같은데?”

“구미가 당기시면, 투자 하시지요”

“집에 있는 노인과 상의 해 봐야 하겠네.”

“어머니가 결정하세요, 그분은 곧 떠나실 건데..”

“음, 자네 생각에 여기서 얼마나 벌릴까?”

“장사란 해보기 전에는 귀신도 모릅니다. 하지만 현재의 여건이라면 연간 3·4억은 벌리겠지요.”

“ 좋네, 그럼 반반이 아니고 3억 이상 벌리면 3억을 공제한 나머지를 모두 자네에게 투자하지”

“음, 그럼 약속하는 겁니다”

“그래 약속하지”

“그럼 여기다 서명하십시오.” 수일은 미리준비해온 투자 서약서에 3억원을 써넣고 할머니의 서명을 받았다. 그리고는 할머니에게 고맙다는 표시로 얼굴 곳곳에 뽀뽀를 해 드렸다. 하지만 할머니는 슬픈 얼굴로 그에게 말하였다.

“언제 떠나갈지 불안해, 모든 사람이 한 달을 견디지 못하고 떠나버렸어” 수일은 이렇게 불안해하는 할머니가 불쌍해 보였다.

그는 동분서주하여 돈 문제부터 해결하고, 서울의 관광회사와 연결하고 해서 봄에는 경포대 벚꽃놀이, 여름에는 경포해수욕장, 가을에는 설악산 단풍놀이, 겨울에는 겨울바다와 스키장 관광객이 끊임없이 몰려왔다. H교수 어머니가 하는 음식점이라는 소문을 타자 인근지역에 산재해 있는 대기업 콘도사람들, 국가대표 훈련캠프 선수들, 서울대학교 교직원들까지, 사람들이 넘쳐났다. 모든 것이 기대 이상이었다.

## 2. 영생

그러자 두 노인들은 수일에게 아들처럼 대했다. 특히 할머니는 수일을 수호천사쯤으로 알고 그가 소유한 모든 것을 보여 주었다. 두 노인의 꿈은 영생이었다. 말하자면 H교수의 생명공학의 힘으로 노구가 죽더라도 자신들의 체세포로 복제인간으로 다시 태어나 불사조처럼 생명을 이어가겠다는 생각이었다.

하루는 할머니가 수일에게 보여 줄게 있다고 가자고 하였다. 그래서 경포대 해안도로를 따라 자동차로 북상하다가 도로가 없어져 버렸다 여기서부터 철길을 따라 도보로 이동하였다. 기차가 다니지 않는 빈 철길은 옛날 일본식민시대의 미완성 철

길이였다. 작은 바닷가 마을이 나왔다. 어촌은 텅 비어 있었고 흰모래만 햇빛에 눈부시게 한가하였다. 마을 뒤 작은 오르막길을 따라 한참을 올라가니 그곳은 아래서 보지 못한 소나무 숲이 울창한 동산이었다. 그곳에서 바라보는 동해는 바로 망망대해로 푸른 하늘과 푸른 바다가 눈 아래 수평선에서 겹치고 있었다. 동산 제일 높은 곳으로 올라갔다. 동산봉우리는 검은 바위로 된 암석봉이었다. 석봉아래에 둥근 대리석 돌에 천구(天球)를 이고 있는 비석이 있었다. 수일은 궁금해서 건딜 수가 없었다.

“어머니 이게 뭐지요?”

“우리 두 노인들 무덤 이네, 우리가 죽으면 이곳에 묻어주게”

“무덤이 이라고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비석에는 두 노인의 기본적인 약력이 새겨져 있었다.

“추후에 나의 공헌을 여기에 새겨 넣게나. H교수가 내놓을 영생은 바로 나의 것이네”

“그렇다고요?”

“그는 나의 자랑스런 아들 이니까!”

“아들처럼 자금을 대주며 후원하신건가요?”

“그렇지”

“언제부터였는데요?”

“내 서울의대 후배고, 생명공학에 뜻을 같이해온 거네. 줄기세포 연구 착안은 내가 제공한 것이지”

“세상에, 어머니 나이가 몇인데, 줄기세포에 착안하셨다구요?”

“우리 아버지는 열 손가락안에 들어가는 친일파 였네”

“조선시대 귀족집안이셨네요!”

“일제시대에 S백작이셨다네”

“우와, 백작의 따님, 공주님!”

“내가 16세 때, 경복궁에서 말을 타다 낙상하여 허리를 다쳤지, 그 후유증으로 아기를 갖지 못하게 되었고, 의대를 졸업하고 소아과 의사가 되어서 생명공학에 몰두했고, 줄기세포에 착안하여 복제동물과 복제인간이 가능하다는 가설을 수립했거든”

“그걸 H교수에게 물려 주신건가요?”

“대물림 한 거지, 그가 내 아들이 된다는 조건으로” 수일이 듣기에는 H교수와 할머니의 관계가 납득하기 어렵다고 생각됐지만 더 이상 캐묻지 않았다. 잘못하면 분위기가 망칠까 겁났다.

“알겠습니다. 제가 어머니의 공헌을 이 비석에 장엄하게 기록해 두고 광개토대왕의

비석처럼 만들겠습니다. ”

“그러면 여한이 없겠네, 내가 H교수의 손으로 새 인간으로 태어나면 자넨 평가하지”

“아, 정말 그런 꿈같은 세상에 사는 건가요?”

“자네 지금 보고 있지 않나, 초롱이와 영룡이 말이야”

“복제소 말인가요?”

“소가 복제됐다면 사람도 시간문제야”

“아, 그런가요? 전 인간이 복제된다는 게 사람 값어치가 상실되는 것 같네요.”

“그건 나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생명공학은 아무나 접근해서는 안 되는 거지. 강력한 통제가 있어야지. 죽은 사람을 1:1로 복사하는 거지. 복수의 인간이 존재한다면 세상은 대 혼란이 일어날 거야”

“그렇겠네요. ”

“자 그럼 무덤 내부를 보여 주지”

할머니가 허리에 차고 있는 천연자석 열쇠로 바위 문을 열었다. 바위 문이 미끄러지며 소리도 없이 열렸다. 안으로 들어가자 피라미드처럼 생긴 내부는 2층 구조로 되어있고 동편과 서편에 두 개의 검은 대리석 석관이 놓여 있었다. 석관만 빼면, 마치 산사람 아파트처럼 꾸며 놓은 것과 같았지만, 가구들은 모두 썩지 않는 돌이나 금, 은, 동으로 만들어져 있었다. 무덤은 호화의 극치였다.

수일은 내심 불쾌하였다. ‘이런 미친 짓을 왜 하나?’ 하지만 할머니가 아들처럼 믿고 숨김없이 보여주는데 실망하게 할 수는 없는 것이었다. 그는 내색하지 않으려고 무지 신경을 썼다.

암석봉을 내려오자 구릉 아래에 있는 교회건물이 보였다.

“산속에 웬 교회가 있네요.”

“내가 세운 영생교회지, 이 동산 여러 골짜기에 흩어져 사는 사람들과 저 아래 어촌에 사는 사람들이 영생교회 신자들이네, ”저들은 내가 죽어 부활하여 돌아온다고 믿는 다네.”

“저 사람들은 어머니를 여왕처럼 만들겠네요.”

“그렇지, 내가 저들에게 땅도 주고 집도주고, 배도 주었으니까. 내가 자넨 소개하지. 나의 아들이라고”

“그럼, 저 사람들에게 너무 황송한데요. 그냥 사무장이라 하시지요!”

“그럼 안 되네, 자네에게 고분고분 해져야 내가 편하거든”

우리가 교회가까이 모습을 나타내자 종소리가 은은하게 숲속을 파고들었다. 그러자 고요하기만 하던 숲속이 술렁거리기 시작하였다. 이내 여기저기서 여러 무리의 사

람들이 몰려와서 할머니께 인사하며 반가이 맞아주었다. 종이 주인을 맞듯, 그들은 할머니를 그렇게 대했다. 할머니는 여왕이 백성을 대하듯 고고하게 웃으며 말하였다.

“별일들 없는가?” 그들의 차림 세는 아무 꾸밈이 없었다. 콩 깎지나 고추를 말리고 약초와 버섯을 재배하고 농사짓고 그물을 뜨던 옷차림 그대로였다.

“네, 마님께서도 무탈하신지요?”

“그렇다네.”

난 흥분하였다. 세상에 이런 별천지가 다 있다니, 지금이 어느 세상인데? 문명의 도시변두리에 중세시대가 버젓이 존재한다는 말인가?

영생교회에는 목사가 없었다. 그들만이 모여서 기도하는 장소인 것이다. 수일은 그래도 그들이 하느님을 찾으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자 이 기괴한 분위기에서 다소 마음이 안정되었다. 난 할머니의 영생을 바라는 이유를 알 것 같기도 하였다. 자신을 여왕처럼 받드는 사람들이 있는 한, 바로 여기가 그녀에겐 천국이었던 것이다.

할머니가 수일을 아들이라고 소개하자 그들은 수일을 신처럼 바라보았다.

산을 내려올 때는 할머니가 많이 지쳐있어 수일이 등에 업고 내려 왔다. 할머니는 아이처럼 가벼웠고 따뜻했다. 그길로 수일은 할머니를 초당 본가로 모시고 가서 흑부리 영감에게 문안 인사를 하러 안으로 들어갔다. 방안에는 한 떼의 낮익은 사람들이 영감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못 볼 일을 들킨 사람들처럼 쑥스런 낮빛으로 수일과 마주쳤다. 그들은 자리를 일어나 밖으로 나가버렸다. 영감의 표정도 벌레 씹은 모습이었다.

“자네, 요즘 주말이면 바쁘냐?”

“네, 영감님도 여전하시지요?”

“자네 그 코털박이 안경이 뭐라 했냐?”

“원리는 간단하지요, 물속에서는 아가미처럼 숨 쉬는 거고, 독개스 속에서는 방독면처럼 숨 쉬는 거고, 어두운 밤이나 연기 속에서는 적외선 안경으로 보는 거지요.”

“괜찮구면, 난 전공이 전자기파네, 내가 우리나라 최초로 전기장판을 만들었지”

“젊어서는 대단했다네.” 할머니가 자랑스런 표정으로 곁에서 거들었다.

“정말이세요? 그렇게 위대하신 분을 몰라봤습니다.” 수일은 눈을 크게 뜨고 영감을 바라보며 놀란 표정으로 말하였다.

“지구는 온통 전자기파에 싸여 있네, 난 그 자기파가 거미줄처럼 내 몸을 감싸고 있는 것이 느껴져, 미래 인간은 그 자기파를 타고 공간이동을 할거네. 물고기가 물에서 헤엄치듯, 사람이 자기파를 헤엄쳐 이동하는 거지, 자기파는 에너지고, 에너지는 변하지 않고 항상 존재하는 것이니까, 힘도 안 들고 공해도 없는 거지”

“아 대단하시네요. 그거 어디까지 진행된 겁니까?” 수일은 일어나 영감의 후에서 흐르는 땀방울을 닦아 주었다.

“연구자료가 탐나나?”

“누구에게 주실 건데요?”

“아직 고민 중이야”

“잘 생각해 보시고 저에게 주십시오.”

“허허허, 그런가?, 아직은 아니네.”

“저 이만 일어나 보겠습니다.”

“앞으로 말이네, 늦도록 일하면, 호텔에서만 자지 말고, 여기 와서 이방에서 자게 나”

“그래도 됩니까?”

“우리 두 사람뿐이니까 심심해서 그러네. ”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사를 하고 수일은 물러 나왔다.

### 3. 올가미

수일이 물러가자 할머니가 물었다.

“저 사람들 와서 뭐라 험담해요?”

“하루에 호텔에 흘러들어가는 돈만해도 3천만원이요, 열흘이면 3억인데 1년에 3억 이라면 수일이란 놈 도둑놈 아니냐고 하던데?”

“그건 내가 애초에 이렇게 잘 될 줄 모르고 한 약속이었어요. 이제 상황이 달라졌 으니까 다시 반반으로 정 해야죠”

“당신은 저 녀석이 좋은가?”

“수호천사가 나타난 기분인데요.”

“당신은 H교수를 만났을 때도 그런 말을 했었지”

“난 여전히 마음속에는 H교수뿐이라고요, 그렇지만 옆에서 아들처럼 지켜주는 사람 도 있어야 해요”

“음, 사람이란 마음의 물속을 들여다 볼 수가 없단 말이야, 30년은 지켜봐야 알 수 있거든.”

“당신처럼 말이지요? 하지만 30년을 못 믿다니, 그럼 인생 끝나는 거 아니요?”

“저 사람, 코털막안경이 뭐야. 믿음이 안가”

“영감 또 사람 의심하는 병이 발동한 거야?”

“병이라니, 지난번 사무장이란 친구에게 얼마나 속았어?”

“그래도 이 사람은 아니 예요”

“네가 뭘 알아?” 갑자기 영감이 화를 내며 언성이 높아졌다. 안경을 놓고나간 수일이 돌아와 안에서 두 노인이 싸우는 소리를 들었다. 수일이 방안에 들어와 있는데도 아랑곳없이 두 노인은 아귀로 변해서 입에 담을 수 없는 쌍스런 욕들을 마구 쏟아내고 있었다. 수일은 안경을 가지고 밖으로 튀어나와 버렸다.

수일은 두 노인네의 추한 모습을 보고 충격 받아 머리가 멍하여 한동안 정신을 차릴 수 없었다. 노인네들은 지옥의 한 가운데 있었다. 왜 저럴까? 할머니도 천사에서 마귀로 추락해 있었다.

나중에 M교수를 통해 알게 된 사정은 그럴 만도 했다. 영감은 육군 고급장교 출신이었다. 젊은 사관시절 그는 다른 여자와 결혼하여 아이들 까지 있었다. 현대 6.25 전쟁 중에 부산에 피란 온 미모의 서울대 의대생을 알게 된 그는 총각행세를 하며 접근하여 이 처녀와 결혼해 버렸다. 전처와 새끼들을 차버린 것이다. 색씨는 그것도 모르고 병원을 개원하여 많은 돈을 모아 지금껏 살아왔고, 이제 늙어서 여기 초당 숲속에 안락한 생활을 꾸리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뜬금없이 남편의 자식들이 몰려와 살림을 박살내고 돈을 뜯어가는 것이었다. 할머니는 놀라 기절초풍하였고 그런 일이 있고나서는 영감이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다. 영감이야 원래 불한당 기질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두 늙은이는 조금만 부딪혀도 악담이 경계 없이 튀어 나오는 것이었다. 그런데도 준비된 무덤에는 영감과 함께하려고 두 개의 관을 준비해 둔 것을 보면, 할머니는 죽어서도 여필종부를 미덕으로 아는 모양이었다. 수일은 지난세대 한국여성들의 여필종부야 말로, 가정을 온전하게 지켜내는 최고의 미덕(어린 자식들 입장에서 보면)이란 생각이 들었다. 그런 면에서 서양문화란 가정을 파괴하는 성병 바이러스인 것이다. 성은 성스럽지 못하고, 혐오스런 쾌락거리로 추락해 버린 것이다.

수일은 영감의 혐오스런 흑부리가 그 영감의 잔인한 행위와 추악한 마음에서 발병한 인과응보의 형벌이라고 생각되었다. 하늘이 내린 천벌을 치르는 것이었다.

수일은 한동안 노인들을 만나러 가지 않았다. 그해도 어느덧 겨울로 접어들어 날씨가 몹시 추워졌다. 어느 늦은 밤 영감이 찾았다. 그는 오랜만에 찾아가는 길이라 야식을 준비해서 초당 기와집으로 갔다. 영감과 할머니가 반가이 맞아주었다. 집은 밖앗 날씨와 달리 따뜻하고 온화하였다. 오랜만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밤늦도록 하다가 가려고 일어나는데 영감이 말했다.

“오늘은 여기서 우리와 함께 자지 않겠나?”

“네? 아 그럼 저기 작은 방에서 자지요”

“아니야, 거긴 냉방이야, 난 침대에서 자니까 할머니 옆에서 자라구. 영감은 침대에

서 한 발짝도 움직일 수없는 입만 살아있는 사람이었다.

“그래, 내 옆에서 자도 괜찮네, 자 여기서 자소.” 하면서 할머니가 이부자리를 만들어 주었다.

‘네 알겠습니다.’ 수일은 몸이 피곤해서 망서림 없이 이불속으로 들어가 누었다. 방바닥이 뜨끈뜨끈하였다. 그는 곧 잠들어 버렸다. 그리고 아침이 되어 눈을 뜨자, 아침도 먹지 않고 집을 나와 호텔로 돌아왔다. 그리고 며칠 후였다. 경찰차 한대가 호텔앞에 나타났다. 차에서 내린 두 명의 경찰이 수일을 찾았다.

“호텔 사장님, 잠깐 경찰서로 가지지요?”

“왜요? 무슨 일이 있나요?”

“자세한 것은 경찰서에서 말씀드리지요?”

“그래야 한다면, 그러지요. 갑시다.” 수일은 별 생각 없이 경찰을 따라나섰다.

경찰은 수일을 경찰서 조사실로 데리고 들어갔다. 수일은 무슨 일인지 감이 잡히지 않았지만 기분이 몹시 나빴다.

그가 원하는 의자에 앉자 체구가 거대한 조사가관이 나타나서 말하였다.

“사장님 취미가 좀 특이하네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할머니를 성추행했다는 고소사건이 접수 됐습니다.”

“당신 지금 농담하는 거요? 내가 성추행을 하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요?”

“그렇게 발뺌해 봐야 소용없어요. 증거가 있으니까“

“웃기지 마시오, 내 뇌간은 다른 사람과 달라요. 성은 추하고 쾌락은 고통이라고 스스로 훈련된 뇌란 말이요!”

“이 양반, 보아하니 걸 다르고 속 다른 사람이구먼”

“사람, 약 올리지 말고 증거나 대시오”

“자 이사진을 보시오. 그래도 발뺌 하겠소”

경찰이 내민 사진을 보던 수일은 얼굴이 장난 끼 넘치는 얼굴로 변했다.

“하하하하, 이 할머니 말입니까? 하하하 아이고 웃겨라” 수일은 정말 우스워서 배꼽이 빠질 정도였다. 며칠 전 할머니 옆에서 자면서 방바닥이 뜨거우니까 이불을 다 걷어차 버리고 옆으로 누어서 할머니 배위에 팔을 올려놓고 자는 모습이었다. 수일은 자신의 잠버릇이 이렇게 웃기는 그림이 되었는지 너무나 재미있었다. 경찰이 꾸밈없이 진짜로 웃는 수일을 보고 이게 아닌데, 라는 생각으로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었다.

“이 할머니와 어떤 관계입니까?” 수일의 웃음이 길어지자 경찰이 역정을 냈다.

너무 웃어서 눈에 눈물까지 반짝이며 수일이 말했다.

“이 할머니는 우리 어머니요, 오랜만에 어머니 옆에서 잤는데, 날씨가 추워서 불을 많이 때서 방바닥이 뜨거웠거든요. 하여튼 내가 보지 못한 내 잠버릇 보여주어서 고맙소. 근데 대체 누가 나를 고소 했다는 거요?”

“거짓말 마시오, 그럼 당신아버지가 아들을 고소했단 말이에요?”

“누가 내 아버진데요?”

“할머니의 남편이 고소했으니까, 당신 아버지 아닌가요?”

“아, 그렇구나, 못된 흑부리 영감”

“이제 순순히 자백하시지?”

“어머니가 수양어머니거든요”

“거 봐요, t수양어머니는 분명 남의 여자 맞지요? 성추행 혐의가 분명해요”

“그럼, 성추행인지 아닌지는 당사자가 잘 알거 아니요?”

“그 말이 내 말이에요. 당신이 더 잘 알 게 아니요?”

“그 할머니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지요. 할머니를 불러 주세요” 이렇게 해서 할머니가 소식을 듣고 부리나케 달려와서 경찰과 수일에게 사죄하고 경찰서를 빠져 나왔다.

“아들, 면목 없네, 그 흑부리 영감이 이렇게 악랄한 수법을 쓸지 정말 몰랐네”

“정말 어처구니없네요. 하여튼 제 팔이 무거우셨을 텐데, 왜 그냥 두셨어요.”

수일의 말에 할머니의 귀가 볼그레 붉어졌다.

“난 일생동안 다른 남자를 모르고 살아왔네, 아들이라고 생각하니 행복했다네. 그걸 보고 영감이 질투심이 날만도 한 거지”

#### 4. 코털막안경

“이제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영감과 헤어지게, 바닷가 동산 영생교회로 가서 코털막안경 연구하게, 내가 투자하는 계속 하겠네”

“어머니, 그게 정말이신가요? ”

“자네 그거 성공하면 나에게 무엇을 줄 건가”

“이익금의 반을 드리겠습니다.”

“좋아. 반이네, 약속 잊지 말게”

“걱정 마십시오”

그는 할머니의 볼에 키스를 하고 호텔로 돌아와 짐을 썼다.

이렇게 해서 그는 코털막안경을 연구하는데 자금지원을 받으며 근심, 걱정, 잡념 없이 연구에 몰두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은 것이다.

그가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바닷가 동산을 올라가는데 라디오 뉴스가 흘러 나왔다. 수일은 자기의 귀를 의심했다.

<H교수 생명공학 총체적 사기극> 그는 허탈해져 머리가 텅비어버린 것 같았다. 그로부터 반년쯤 지나서 상가 빌딩은 장사가 되지 않아 문을 닫았고 누군가에게 헐 값에 팔려나갔다. 할머니는 초기에 무척 상심하였지만 그래도 H교수가 초당 숲속 연구실에 칩거하며 연구에 몰두하고 있고, 수일이 영생교회에서 코털막안경연구에 몰두하고 있으니 행복해 하였다. 흑부리 영감은 수일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였다.

3년 후 H교수는 백두산 호랑이를 복제하여 수일에게 주었다. 호랑이 새끼는 개의 유전자와 교배하여 성질이 온순하였으나 호랑이의 기질도 있어 1년쯤 후에는 체구가 송아지 만하여 힘이 좋고 달리기를 잘 하였다. 수일은 호랑이를 타고 동산숲을 누볐다. 사람들은 그를 범신이라 하였다.

H교수도 대학에 복귀하고, 수일도 드디어 코털막 안경연구가 성공하여 상품화되었다. 코털막 안경의 효능이 알려지자 제품의 수요가 엄청났다. 소방서, 잠수부, 군대, 치하철, 탄광, 모든 선박과 비행기, 건설 공사장, 하수도 청소부 등 등 필요로 하는 곳이 무척 많았다. 수일은 돈방석에 앉았다. 이익금의 반을 할머니께 드렸다. 그러자 팔려나간 상가호텔도 다시 사들이고, 호텔 전문경영인도 앉혔다.

## 5. 자연으로

할머니는 자식을 낳지 않았지만 H교수와 수일 두 아들을 두어 행복했다. 할머니는 이제 90세가 되었고, 모든 욕심도 사라졌다. 많은 돈을 사회에 기부하였다. 영생도 원치 않았다. 영생교회도 수일의 전자기파 공간이동술 연구실로 만들어 버렸다. 피라미드 무덤은 할머니와 수일의 안락한 휴식처가 되었다.

흑부리영감은 어느 날 괜히 화가 나서 할머니에게 욕하다 죽었다. 할머니는 울지

도 앓았다. 3일장으로 영감의 시신을 화장하여 동산 소나무 밑에 묻어버렸다.  
할머니는 자연이 천국이라 여겼다. 소나무 밑이 천국인 것이다.

2010 6. 4일

강대일 작